

“매화꽃 피니 봄향기 가득하다”

포스코미술관 매화전...3월 9일까지

매화는 봄을 알리는 전령사다. 추위를 이겨내고 세상에 봄향기를 내뿜는 매화를 담은 그림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가 있다. 3월 9일까지 포스코미술관에서 열리는 ‘매화, 피어 천하가 봄이로다’는 16세기-20세기 초 매화를 주제로 한 목매도, 점, 병풍 등 90여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특히 이번 전시에는 김홍도(1745~?), 본연 스님(1873~1949), 이응로(1904~1989) 화백 등의 매화도를 감상하며 봄의 향기를 느낄 수 있다.

포스코미술관 측은 “혹한의 추위를 이겨내고 가장 먼저 봄을 알리는 꽃, 매화로 부터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기백과 정신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군자의 꽃, 매화를 주제

로 다룬 다양한 옛 그림 속에 나타난 선인들의 절개와 지조어린 삶의 지혜를 이해하고 배우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풍속화의 대가로만 알려졌던 단원 김홍도의 사군자 작품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단원의 ‘매화음(梅花飲)’에 얽힌 사연은 재미있다.

김홍도는 매화나무가 썩 마음에 들었으나 끼니도 거르기 일수인 가난한 살림에 매화나무를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때 마침 누군가가 김홍도에게 그림을 청하고 그 사례로 3,000냥을 주자 김홍

본연 스님 등 90여 작품 전시

김홍도 ‘매화음’ 흥미로워

도는 2,000냥으로 매화를 사고 800냥으로 술을 샀다. 그리고 친구들을 불러 매화를 감상하며 술을 마셨다고 한다. 그리고 그 감자리를 ‘매화음(梅花飲)’이라 했다. 특히, 포스코 미술관은 앞 정원에 백매와 홍매 등의 나무를 식재해 전시기간 내내 매화의 개화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이와 동시에 3월 9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매화도 그리기 행사도 마련한다. (02)3457-1665 정혜숙 기자



포스코미술관은 3월 9일까지 매화전을 연다. 그림 왼쪽은 본연스님 ‘매국대련 중매’, 오른쪽은 김홍도 ‘괴석매화’

“봄맞이, 사찰 문화강좌로 하세요”

불화에서 베이킹까지 각 사찰별 프로그램 다채

여전히 쌀쌀한 기운이 맴돌지만 나뭇가지에서는 새싹들이 움터 올라 온몸으로 새봄을 말해준다. 그렇다. 긴 겨울의 그림자를 뚫고 봄이 온 것이다. 따뜻한 날씨가 끝나고 봄이 온 것이다. 따뜻한 날씨가 끝나고 봄이 온 것이다. 따뜻한 날씨가 끝나고 봄이 온 것이다.

3월 개강을 앞둔 조계사 문화강좌는 도심속에 위치한 많은 이들이 찾고 있다. 요가, 천연염색, 불교한문, 디지털카메라, 한국무용, 불화 도자기 공예, 민요 단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조계사 문화강좌로 운영중에 있다. 특히 도자기 불화 염색, 요가 등은 모집과 동시에 정원이 다 차 만큼 인기가 높다.

조계사 문화강좌 담당 전진미 주임은 “불교에 관심 있는 분들이 오다보니 전통적인 것에 관심을 많이 보인다. 특히 소수 정예로 인원을 채울 수밖에 없는 도자기반은 정원을 초과할 정도로 수강생이 몰리고 있다. 요가 역시 몸을 치유한다는 측면에서 수강생들에게 관심이 높다. 이번 봄학기에는 바느질 소품을 직접 제작할 수 있는 규방공예반을 신설해 신입 수강생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02)720-1390

통도사 성보박물관 문화강좌는 전문 단청 불화 서각반 전각반 불교문화답사반 불교문화강좌반, 전통손누비반, 생활자수반 등이 있다. 2월 수강생을 모집해 3월 신입생을 맞는 성보박물관 문화강좌는 10여년 동안 대중들의 사랑을 꾸준히 받아오고 있다.



봉은사 사찰요리강좌



통도사 불화반의 불화그리기 모습.



봄철을 맞아 사찰에서는 다양한 문화강좌를 마련하고 있다. 사진은 조계사 도자기 문화강좌

조계사, 요가·도자기 등 인기 통도사, 불화·손누비반 전문 강좌 비구니회관, 사찰음식반 관심 집중

통도사 최현정 씨는 “불화나 단청반은 일반 대중뿐만 아니라 미술 전공자들도 많이 찾는 인기강좌다. 특히 단청반은 자격증반까지 갖추고 있어 전문적인 수업을 원하는 이들이 찾는다. 전문가를 찾기 힘든 전통손누비반 역시 인근 울산 부산뿐만 아니라 제주도에서까지 수강생이 올 정도로 유명세를 타고 있다”고 설명했다.(055)384-0020

능인선원 꽃꽂이 한국무용 영어회화 등에 단청 불화 등 다양한 문화강좌를 열고 있다. 이번 봄학기에는 명상도 베이킹 사군자·동양화 등이 개설돼 수강생들을 기다리고 있다.

능인선원 문화강좌 담당자는 “건강과 관계된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다. 특히, 이번 개설되는 베이킹 프로그램은 유기농 재료를 이용해 기름이 없이 빵을 굽는 프로그램으로 웰빙에 관심이 많은 대중들의 인기를 한데 모으고 있다. 또한 명상도 프로그램 역시 심신의 안정을 찾고 싶어하는 대중들에게 호응이 높다”고 전했다.(02)571-2988

전국비구니회관 범룡사는 사찰음식, 규방공예, 천연염색, 민화, 다도, 생활자수 등의 강좌가 운영중이다. 전국비구니회관의 사찰음식반은 1년 강좌로 진행되며 수강대기자가 밀려 있을 만큼 인기가 높다. 현재 180여 명의 수강생이 꾸준히 수업을 듣고 있다.

전국비구니회관 측은 “주로 생활밀접형 강좌들이 인기를 모으고 있다. 특히 사찰음식은 국내외적으로 매우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다가 전국비구니회관에서 오랫동안

강좌가 진행되다 보니 인기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잡았다. 집안의 소품을 만들 수 있는 생활자수 역시 수강생들이 매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강좌 중 하나”라고 전했다.(02)3411-8103

봉은사는 사찰음식, 노래교실, 사진교실, 초의다명상 등의 강좌가 진행되고 있다. 봉은사 강민수 팀장은 “외부에 열려 있는 강좌이기는 하지만 워낙 신도수가 많다 보니 수강생 모집을 하면 사찰 신도들로 바로 채워지는 편이다. 하지만 사찰음식 강좌는 타종교인들에게도 거부감이 없어 꾸준히 수강생이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02)3218-4800

이밖에도 연화사문화센터의 요가 라인댄스 모듬북 어린이요가 포크아트 규방공예 천연비누만들기 난타 단소 풍물 등의 강좌가, 진관사는 오카리나 사찰음식반 풍물반 등이 수강생을 기다리고 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국립대구박물관 문화강좌 수강생 모집

4월 13일부터 불교 역사·문화 강좌 열려

고려불화 한국의 불상 조각 등을 배울 수 있는 문화강좌가 대구에서 열린다. 국립대구박물관(관장 함순섭)은 역사·전통 강좌와 문화유적지 현장답사로 구성된 제 18기 박물관대학을 연다.

수업은 △4월 13일 개강식 및 국립대구 박물관과 대구의 역사·문화 △4월 20일 신석기시대 문화 △4월 27일 청동기시대 문화 △5월 4일 고구려 문화의 이해 △5월 11일 백제 문화의 이해 △5월 18일 신라 문화의 이해 △5월 25일 답사 △6월 1일 한국의 금속공예 통일신라 △6월 8일

한국의 불교조각 통일 △6월 15일 문자·목간·이두 △6월 22일 발해의 역사와 문화 △6월 29일 답사 △7월 6일 고려의 지방사회 △7월 13일 고려 불화 △7월 20일 우리 옷의 역사 △7월 27일 아시아의 복식 문화 등으로 구성된다.

300명을 정원으로 하며 4월 13일~7월 27일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16주 동안 이루어진다. 참여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국립대구박물관 누리집(http://daegu.museu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053)760-8580~3 정혜숙 기자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 있다”

‘대지부’ 문화예술회관연합회 우수공연 선정

부인사의 초조대장경을 소재로 한 뮤지컬 ‘대지부’가 2013년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우수공연으로 선정됐다. 극단 초이스 시어터가 만든 대지부(대본 안희철·작곡 여승용·연출 최주환)는 초조대장경 조판 천년을 맞는 부인사에 오래된 미라가 발견되면서 벌어지는 소동극이다.

감독 최주환 씨는 “2011년 대구유상선 수권 대회를 앞두고 대구를 대표할 수 있는 작품이 없을까를 고민하다가 생각해 낸 것이 바로 부인사의 초조대장경이다. 조판 천년을 맞는 대구 부인사를 배경으로 이야

기를 풀어보자는 취지로 공연을 기획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뮤지컬은 부인사에서 발견된 미라가 가슴에 품고 있던 무엇인가 사라진 흔적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형사, 특종을 찾기 위해 뛰어든 여기자, 문화재청 초빙연구원 보리 베베르가 만나게 되면서 초조대장경의 미스터리가 빠져게 된다는 내용이다.

최 감독은 “천년을 오가는 시간과 공간을 통해 일체유심조의 사상을 말하고자 했다. 인간의 욕심이 허망하다는 진리를 보여 주며 불행도 행복도 모두가 내 마음에



초조대장경을 소재로 한 ‘대지부’가 2013년 한국문화예술회관 우수공연으로 선정됐다.

달려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다.

대지부는 현재를 중심으로 과거의 신화와 설화적 상상력이 가미된 다채로운 음악 형식과 안무형식의 뮤지컬로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며 상상력을 극대화해 코믹과 진지함을 동시에 표현하고 있다.

‘대지부’는 2012 대구국제 뮤지컬 페스

티볼 창작지원작으로 선정되어 남우조연상을 수상했고, 2012 제주 아트페스티벌 쇼케이스에 뽑히기도 했다. 대지부는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우수공연으로 선정됨에 따라 각 지역 문화회관 공연에 나서게 된다.

정혜숙 기자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한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3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종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40,000원
가 루 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78,5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음식조리용·양치용·피부미용)
5만 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016-823-0483**
입금: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ij.co.kr

스님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마이크 목걸이**

A 타입 영주구기 25mm ₩65,000
B 타입 영주구기 16mm ₩55,000

A+B (1set) ₩100,000 택배비 무료

주문전화
구미 미륵사(지연) 010-8631-3527
팔공산 정원사(성봉) 016-849-8889
거제도 정도암(진각) 010-6657-5522
대구 포교사(법일) 010-9591-8599

☆유☆무선☆경용☆
입금계좌(예금주: 미륵사)
농협 351-0251-7333-73
우체국 700914-02-063333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인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로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장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뒤틀면) 8cm]

■ 고급형 39,000원 ⇨ **35,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뒤틀면) 6cm]

주문은 **현불상!**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